

편집 및 발행인 : 장영태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말레이시아 '컨' 항만물동량 증가세 지속 ... 2대 항만이 성장세 견인

● 국제물류 투자 동향

- 머스크, 현대미포조선과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 건조 계약 체결
- Kuehne+Nagel, 최근 인수한 Apex 자본 일부 매각

● 글로벌 SCM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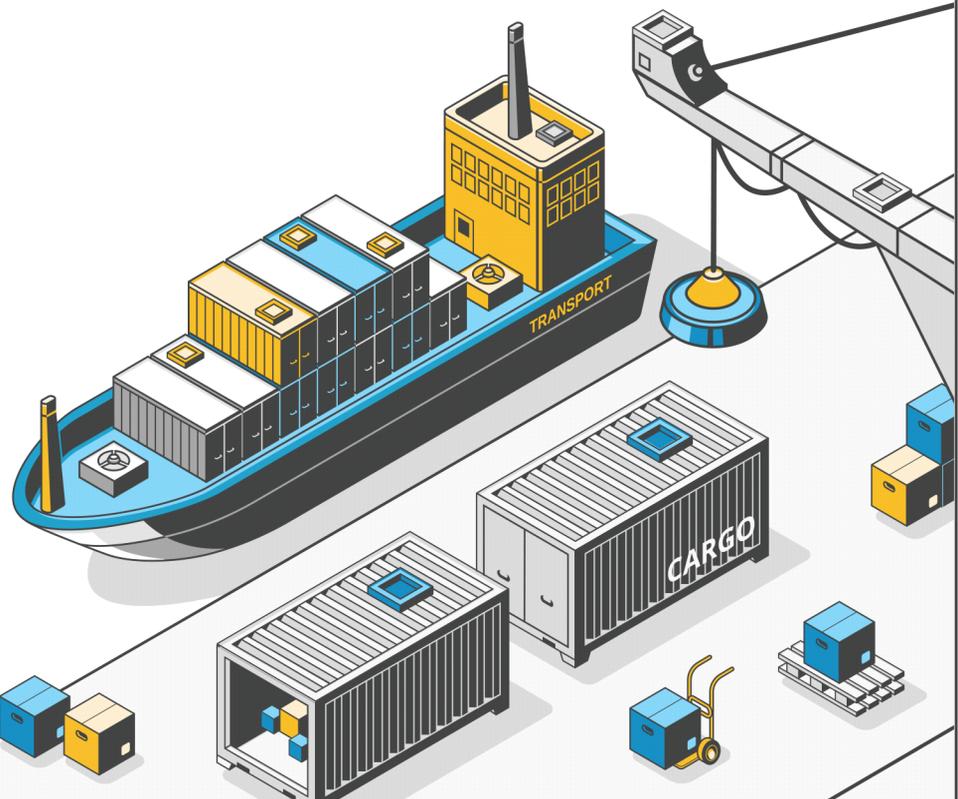
-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물류 DX 및 물류 표준화 방안 제시 ②

● 국제물류 연구동향

-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미래

● 공지사항

-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키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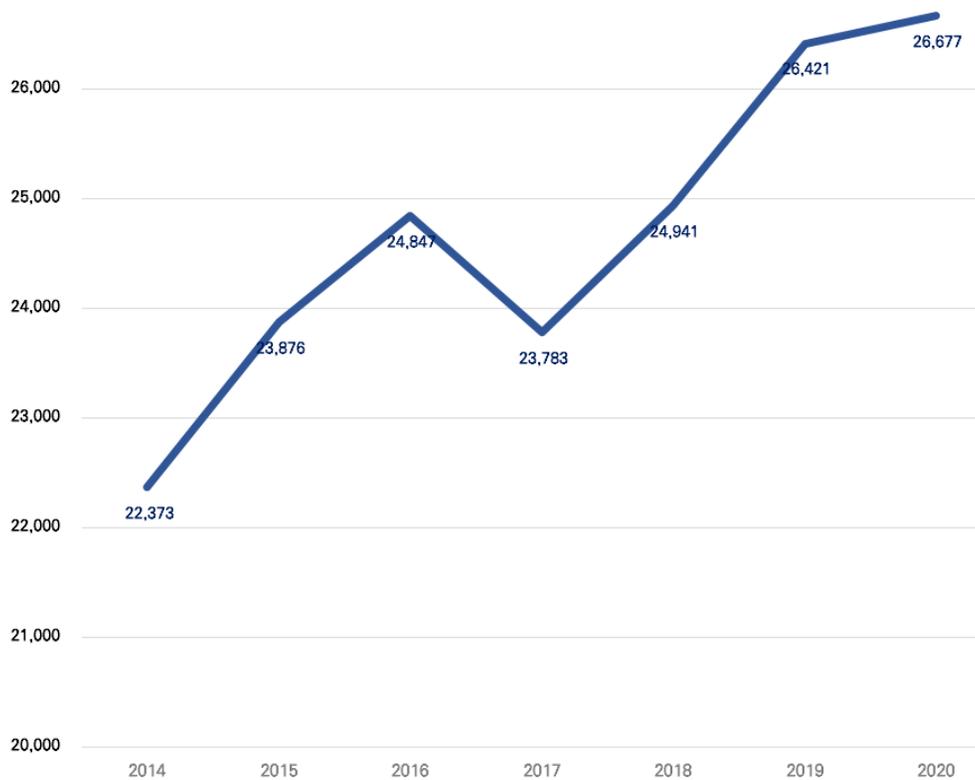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컨' 항만물동량 증가세 지속 ... 2대 항만이 성장세 견인

- ▶ 말레이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이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전체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지난해 약 2,700만 TEU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17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14년(약 2,200만 TEU) 이후 연평균 약 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대로 인해 '20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말레이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변화(2014-2020년)

(단위 : 천 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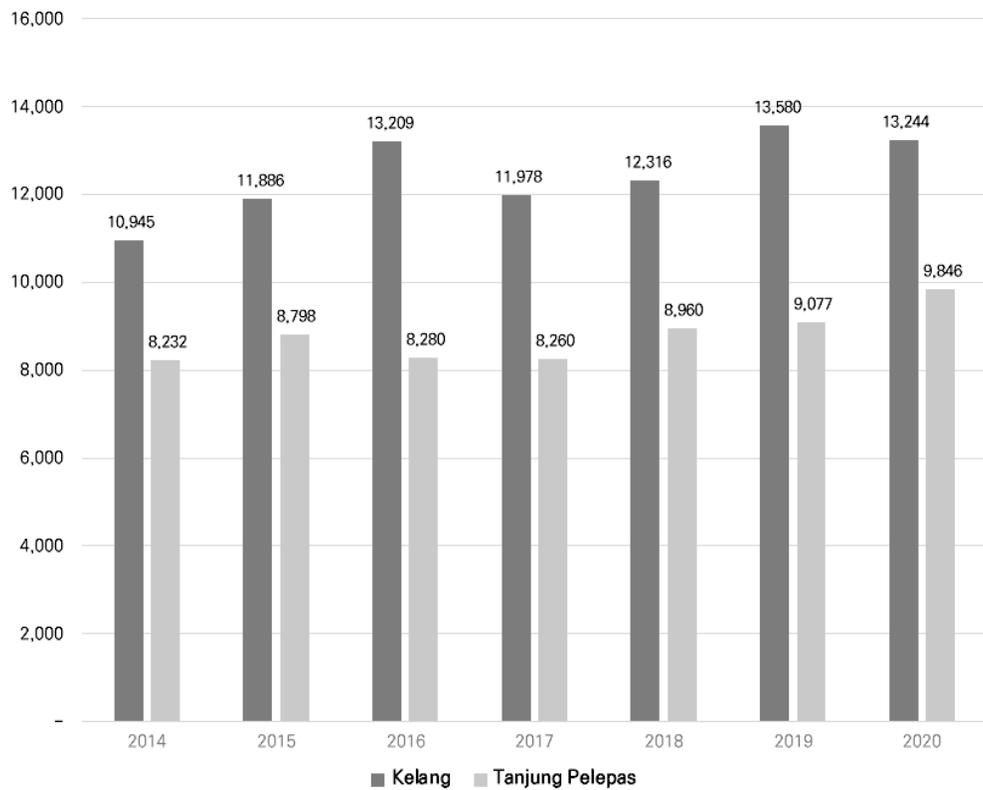
자료 : 말레이시아 Ministry of Transport(www.mot.gov.my) 통계 데이터 활용

▶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은 켈랑항과 탄중펠레파스항으로 전체 '컨' 항만물동량의 약 86%를 처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켈랑항은 전체 '컨' 항만물동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300만 TEU를 처리함
- '17년 켈랑항과 탄중펠레파스항 모두 전년 대비 물동량이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19년(1,358만 TEU)과 '20년(984만 TEU)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함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변화(2014-2020년)

(단위 : 천 TEU)



자료 : 말레이시아 Ministry of Transport(www.mot.gov.ny) 통계 데이터 활용

참고자료: www.mot.gov.ny, (검색일 : 2021.7.5.)

머스크, 현대미포조선과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 건조 계약 체결

- ▶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A.P. Moller - Maersk)가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을 국내기업인 현대미포조선과 건조하기로 발표함

 -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은 2100 TEU급으로 건조 후 발트해 해운항로로 2023년 중순까지 인도할 예정임
 - 현대미포조선은 1975년 창사 이래 중형선박 건조부문 세계 1위 조선소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 머스크와 현대미포조선소는 메탄올이나 초저유황 연료로 항해가 가능한 이중엔진 기술이 적용되는 공급선 건조 계약을 체결함
- ▶ 이번에 발주된 선박은 길이 172미터이며 머스크 자회사인 Sealand Europe을 통해 북유럽과 보스니아만 사이 발트해를 운항할 예정임

 - 선박의 메탄올 추진 구성은 주 엔진(MAN Energy Solutions과 Hyundai Engine and Machinery)과 보조 엔진(Himssen)으로 구성되어 현대미포조선과 머스크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임
 - 건조 선박에 대한 안전성과 적합성은 미국선급협회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가 담당하고 덴마크 국적으로 등록될 예정임
- ▶ 머스크의 헨리엣 할버그 튀게센(Henriette Hallberg Thygesen) 브랜드전략 CEO는 “이번에 건조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은 글로벌 이슈인 선박 오염물질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먼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함
- ▶ 금년 2월, 머스크는 2023년 세계 최초 탄소중립 선박 운영, 2030년 탄소배출량 60% 감소,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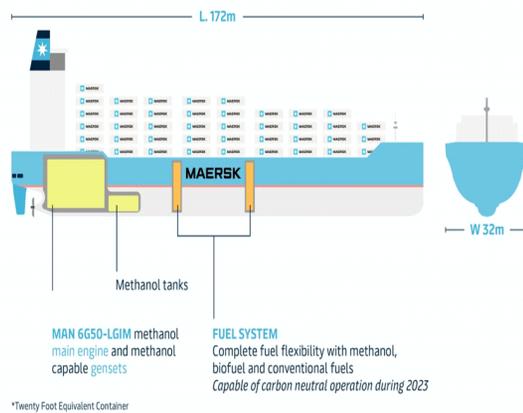
 - 향후 머스크는 모든 신조선에 이중연료기술을 설치해 탄소중립운영 및 초저유황 연료유(VLSFO: very low sulphur fuel oil)로 운영할 예정임
- ▶ 국내 조선기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에서도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을 위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필요함

머스크의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 선박 운항 계획

World's first container vessel
operated on carbon neutral fuels



- Fuel type: Carbon neutral methanol
- Container Capacity: 2100teu* includes 400 reefers
- Top speed: 18 Kn



자료: <https://www.maersk.com/>

참고자료: <https://www.maersk.com/> (검색일 : 2021.7.6.)

Kuehne+Nagel, 최근 인수한 Apex 지분 일부 매각

- ▶ Kuehne + Nagel은 최근 인수한 Apex International의 지분 24.9 %를 사모 펀드인 Partners 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음

 - Kuehne+Nagel은 이번 거래 이후 Partners 그룹과 협력해 새로운 화물 포워딩 경로 구축을 포함한 주요 이니셔티브 - 새로운 물류 주선 경로 확보, 새로운 성장 동력 등 - 를 통해 중국 기반 포워더를 위한 "변환 가치 창출 계획"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힘
 - Partners 그룹은 또한 Apex 이사회의 자리로 대주주 Kuehne + Nagel 그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 ▶ Kuehne + Nagel International의 항공 물류 부사장이자 Apex회장인 Yngve Ruud 씨는 Partners 그룹의 재무 및 전략적 전문 지식과 Kuehne+ Nagel의 실무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Apex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또한 Partners 그룹 사모 펀드 전무 이사 Sheng Liu씨는 Apex가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가속화된 글로벌 전자 상거래의 부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임을 강조했다
- ▶ Kuehne + Nagel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약 12억 달러를 투자해 Apex의 88.5% 지분 인수를 완료하였음
- ▶ Kuehne + Nagel는 Apex를 성공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유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최대 물류 공급 업체의 하나로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상하이에 본사를 둔 Apex는 특히 태평양 횡단 및 아시아 내 항로에서 아시아 최고의 화물운송 업체 중 하나임

 - 이 회사는 41개 지역에 약 1,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20년 Apex는 매출액이 22억 달러 총이익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량 측면에서 7위를 차지하는 기업임

자료: <https://www.aircargonews.net/freight-forwarder/kuehnenagel-sells-minority-stake-in-apex/> (검색일 2021.7.5.)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물류 DX 및 물류표준화 방안 제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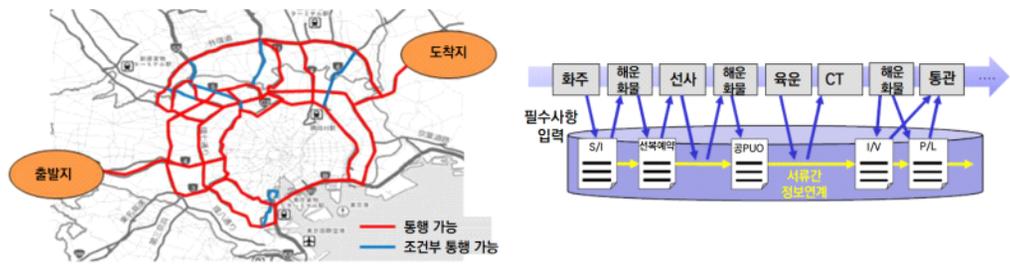
- ▶ 일본의 新종합물류시책대강의 첫 번째 시책으로는 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실현을 위한 「물류 DX 및 물류표준화를 통한 전체 공급망 최적화」로 책정함
 - 물류 DX 추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각종 요소의 표준화가 중요한 사안으로 팔레트와 외장 규격의 표준화를 통해 로봇 도입 진전 및 배송 코드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배송 업무 효율화와 작업의 범용화·간소화가 실현됨
 - 현재까지 비용 부담 및 상관습의 영향 등으로 인해 표준화가 지연되었으나, 물류 DX 추진에 있어 물류 표준화는 필요 불가결한 사안임
 - 또한 물류 DX 추진을 위해 물류 공급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고, 해외를 비롯한 최첨단 물류 분야에서의 DX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도 중요함

- ▶ 동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문서 전자화, 항만물류 생산성 향상, 데이터 기반 정비, 특수 차량 통행 신속화, ICT 활용 등 '물류 디지털화 강화'로 설정함
 - (문서 전자화) 현재 문서(FAX) 및 전화 등으로 실시되는 민간 사업자간 무역 수속이나 화물 집하 등의 수속에 대해 전자화를 진행하고, 데이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문서 간소화를 추진함
 - 특히 항만물류는 각종 수속을 전자화하는 'Cyberport 11' 추진을 통해 업무 효율화·항만 물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항공물류의 경우 e-freight 실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검토함
 - (공급망 전체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화) 물류 전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일관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비를 목표로 하고, 발(發)화주-물류사업자-착(着)화주 등 복수 사업자의 연계에 의한 시스템 공유 및 각종 센서, RFID 등으로 수집·공유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급망 전체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 정비를 도모함
 -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규제 완화 특례 검토) 특수 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행 가능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통행제도 도입을 통해 특수 차량의 통행 신속화를 도모하고, 사업용 차량의 AI 점호(點呼) 기기 인정 제도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의 기기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체에 대해 규제 완화 및 특례 적용을 검토함

〈 주요 KPI 〉

- 'Cyberport 11'(항만물류) 지속가능한 항만관계사 - 약 650개사(2025년도)

특수 차량 통행 신속화 및 Cyberport 예시



자료: 국토교통省, 総合物流施策大綱 (2021年度~2025年度) の概要, 2021.6, p. 2.

▶ 두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시설의 로봇 도입 지원, 대열 주행·자동운전 실현 등 ‘노동력 부족 및 비접촉·비대면형 물류에 따른 자동화·기계화 촉진’임

- (공급망 전체 자동화·기계화 추진)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수송망 집약, 공급망 전체의 시스템 공유 및 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자동화·기계화를 추진해 물류 효율화를 목표로 함
- (물류시설 자동화·기계화 도입) 물류창고, 배송센터 등 물류 시설에서는 로봇, 무인 지게차, 무인운반차 (AGV) 등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고, 정부는 도입 촉진을 위해 「자립형 zero energy 창고 모델 촉진 사업」 등 지원책을 강구함
 - 개정된 ‘물류종합효율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동화기기 도입을 통해 물류시설을 건설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리스 등 사업자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 지원 사업 내용을 구성함
- (간선수송의 자동화·기계화 도입) 간선수송은 도로, 해운, 항공 분야로 구분해 자동화·기계화 도입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 (도로) 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실증실험 등에 대응한 도로의 미래상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고, 2021년 고속도로의 후속 차량 유인 대열 주행시스템 상업화, 2023년 고도의 차량 집단 유지 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개발, 2025년 이후 레벨4 자동운전트럭 실현을 목표로 함
 - (해운) 선박에 AI, IoT 등의 기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① 육상으로부터의 선박 상시 상태 감시, 기관 고장 등의 예방, 불량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② 기상, 해상 등 주변 정보에 근거하는 최적 항로, 속력 등의 자동 설정 등을 실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의 항행을 실현. 그리고 이러한 선진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해난 사고 예방, 선원 노동 환경 개선 등 2025년까지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함. 또한 실제 선박을 이용한 자동운항기술의 실증 결과 등을 근거로 국내 가이드라인의 책정 및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 규정의 책정을 주도함
 - (항공) 공항의 지상 지원업무의 자동화 효율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항 제한구역 내 차량의 레벨4 무인자동운전 도입을 목표로 함
- (배송업무의 자동화·기계화 도입) 배송업무에서 SI를 활용해 최적 배달루트의 자동 생성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배송업무 지원은 노동력의 확보로 연결되므로 드론 물류, 자동배송 로봇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중소기업의 자동화·기계화 도입) 중소기업의 물류DX 선진화 사례에 대한 홍보 및 정부 포상 등을 실시

- 하고, 기계 도입 등의 설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촉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
-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로봇, AGV, 자동배송 로봇 등 물류업무를 보조하는 로봇에 대해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함

< 주요 KPI >

- '물류종합효율화법'의 종합효율화 계획 인정 건수 - 141건(2020년도) → 330건(2025년도)

물류시설, 도로, 해운 자동화·기계화 도입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종합물류시설대규모 (2021년도~2025년도)의概要, 2021.6, p. 2.

▶ 세 번째 세부 방안은 가공식품 분야의 표준화 추진 체제 정비, 분야별 물류 표준화 추진 등 '물류 표준화 강화'임

- (사물-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등의 표준화 추진)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는 물류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종 요소의 비표준화로 인한 물류현장의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유닛로드 및 EDI 등을 비롯해 사물-데이터·수배송 조건을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공식품 분야 표준화 추진) 2020년 가공식품 분야는 물류 표준화의 액션플랜을 책정해 납품 전표, 외장 표시, 팔레트·외장 규격, 코드체계·물류 용어 등 4항목에서의 표준화 필요성 도출 및 추진 방향성을 제안함. 이를 위해 공급망 전체 차원에서의 물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이 필요함
 - 물류 표준화의 추진에 있어 부대작업 및 화물 대기시간 감축, 리드 타임 연장, 환경부하 요인인 화물 수령 시의 과도한 외장 불량기준 완화 등의 상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국제화 및 디지털화를 고려한 표준화 추진) 물류 국제화 및 디지털화 추진 시 사업소 코드, EDI 표준 등에 대해 GS1 및 UN/CEFACT 등 국제표준을 준용해 추진함
 - 팔레트 규격의 경우 장기적인 국제 일관 규격 실현을 위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함

< 주요 KPI >

- 분야별 물류표준화에 관한 액션플랜 등 책정 수 - 3건(2021년도 ~ 2025년도)

물류 표준화 도입 사례

<p>전표 표준화</p> <p>○ 화주 등 사업자별 전표가 상이하여 기재항목도 차이가 있어 물류 비효율 발생</p> <p>전표 양식, 기재항목 제각각 기재항목 등 전표 통일</p> <p>검품 - 사무작업 효율화</p>	<p>외장 표준화</p> <p>○ 다양한 상품 규격 및 형태로 인해 팔레트 등 적재효율 저하</p> <p>다양한 규격 표준화된 규격</p> <p>하역작업 효율화, 적재 및 보관효율 향상</p>
<p>수취 시 DB 표준화</p> <p>○ 물류사업자와 착화주간의 상품DB가 표준화 되지 않아 납품 시 유통기한 등의 검품 비효율 발생</p> <p>DB 연계 없음 DB 연계 납품 DB 사전 공유</p> <p>검품 - 납품 작업 효율화</p>	<p>팔레트 표준화</p> <p>○ 다양한 팔레트 규격으로 인해 적재효율 저하</p> <p>적재 작업: 2-3시간/10톤 트럭 표준 팔레트화 실현</p> <p>하역작업 효율화, 트럭 적재효율 향상</p>

자료: 국토교통부, 総合物流施策大綱 (2021年度~2025年度) の概要, 2021.6, p. 3.

▶ 네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상류(商流) 데이터 기반 구축, 물류 MaaS의 추진 등 ‘물류·상류(商流) DB 구축’임

- (SIP 등의 DB연계 기반 구축) 2018년에 시작된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를 통해 물류·상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간 효율적인 공동 수배송 및 타 업종간 물류 매칭을 통해 적재효율 향상 등을 실현함
 - 외장 및 화물 형태, 온도 등 수배송 현장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공유하기 위한 AI 및 IoT 등의 新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취득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함
- (DB 기반 공유 및 접속을 통한 생태계 형성) 분야별 데이터 기반 형성을 통해 조달-생산-소매-소비 등 공급사슬 전체의 정보를 통합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 등의 물류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사회 전체의 실질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Society 5.0을 추진함
 - 다양한 사업자간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 지원, 표준 API 책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 벤처 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함
- (국내 물류 DB와 수출입 등의 프로세스와 연계) 물류사업자의 항만물류 수속의 전자화(Cyberport 11)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항만물류에 있어 「사람을 지원하는 AI 터미널」 실현,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와의 연계 강화를 실시함
- (물류 MaaS 추진) 상용차의 연결성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증대에 따른 운송 사업자-상용차 제조사-화주 등의 협력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실현하고, 상용차 제조사의 트럭 DB를 공통적인 구조로 수집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실시함
- (DB 제공 시 정보보안 철저) 기업의 신용정보 등의 보안 철저를 위해 데이터 기반 구축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주요 KPI 〉

· 물류·상류 DB기반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 건수 - 3건(2021년도 ~ 2025년도)

➤ 다섯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 DX 추진 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명확화, 학습 기회 제공 등 ‘고도물류인력 양성·확보’임

- (DX 추진 인력 능력 명확화) 물류 DX 실현을 위해 물류 현장 과제의 정확한 인식, 글로벌 물류 산업 트렌드 이해, 선진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물류 업무 기획·제안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함. 이러한 고도 물류 인재의 확보를 위해 선진 사례 조사, 향후 고도물류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명확히 파악함
- (각 계층 학습 기회 제공) 기존의 물류 전공 분야를 포함해 경영정보학, 경영공학, 수리과학 등의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물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정이 협력해 고도물류인력 양성을 추진함. 화주 및 물류사업 종사자에 대해 고도의 지식, 기능,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supply-chain management, operation management 등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

〈 주요 KPI 〉

· 대학·대학원 물류·공급사슬 관리 분야 산학연계 기여 강좌수 - 50강좌(2021년도 ~ 2025년도)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미래

- ▶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물류산업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경쟁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미래 물류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 본 보고서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든 물류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고 논의해 물류기업들이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작성됨

무엇을 발견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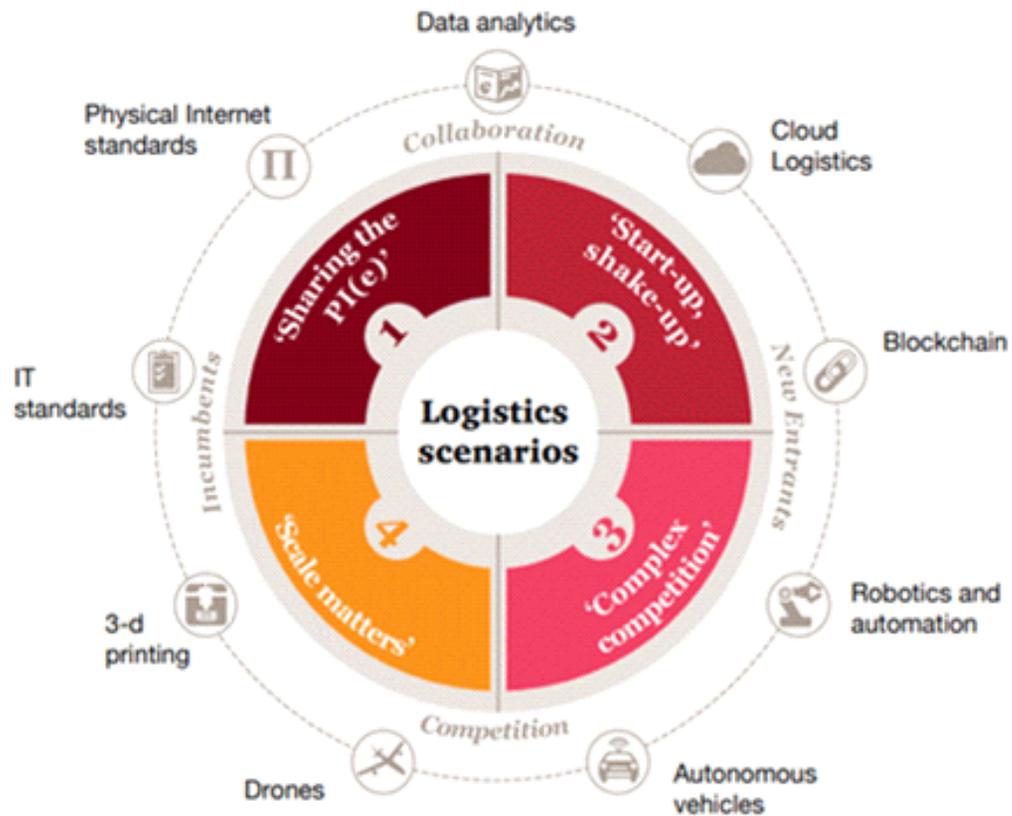
- ▶ 물류산업의 경쟁구도와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4가지 변화를 제시함
- ▶ **높아진 고객의 기대수준(changing customer expectation)**
 - 개인 소비자화 마찬가지로 산업 고객은 이제 더 빠르고 유연하며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는 선적을 기대하고 있음
 - 업계 전반에 걸쳐 운영 모델과 수익성이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대규모 제조 및 소매 고객의 변화 속도는 최종 개인 소비자보다 훨씬 빠를 수 있음
- ▶ **기술적 혁신(technological breakthroughs)**
 - 기술은 물류 회사의 운영 방식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음
 - '디지털 피트니스(digital fitness)'는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며 승자는 데이터 분석에서 자동화 및 플랫폼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인재들을 확보한 기업이 될 것임
 - 따라서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된 명확한 디지털 전략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 ▶ **신규 진입자(new entrants to the industry)**
 - 물류산업에 진입하는 신생기업(start-ups)들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음
 - 새로운 '공유'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적 기술만큼이나 이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류산업의 현재 고객과 공급자가 가장 큰 신규 진입자가 될 수 있음

➤ 새로운 형태의 협업(redefining collaboration)

- 이미 몇몇 기업들은 라스트 마일(last mile) 부분에서 수평적 협업을 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불일치는 협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음
- 높은 수준의 효율성은 협업의 형태에 관계 없이 물리적 인터넷을 통해 정의된 일관성 있는 표준을 통해 달성 될 수 있음

➤ 아울러 미래 물류산업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함

PwC가 제시한 미래 물류 시나리오



자료 : Tipping, A., & Kauschke, P. (2016). *Shifting patterns: The future of the logistics industry*. Price Waterhouse Coopers, Phoenix.. p.12.

▶ 물리적 인터넷 공유(sharing the physical internet)

- 기존 기업들은 더 많은 협업을 하고 네트워크 공유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이게 될 것임
- 물리적 인터넷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배송 크기 표준을 공유하고, 연결성을 증대시키며, 운송수단간 필요한 정보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임

▶ 신생기업의 영향력 증대(start-up, shake-up)

- 신규 진입자는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또는 기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크라우드 배송(crowd delivery) 솔루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라스트 마일(last mile) 배송은 더욱 세분화 되면서 신생기업은 기존기업과 협력하고 서비스 제공을 보완하게 될 것임

▶ 복잡한 경쟁(complex competition)

- 대형 소매업체는 물류 서비스를 확장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고 고객에서 경쟁자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것임
- 대형 소매업체들은 주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소규모 물류업체를 흡수하고 고객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물류시장에서 공급 업체였던 기술 기업도 물류 분야에 진입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자로 변모하게 될 것임

▶ 규모의 중요성 증대(scale matters)

- 기존 기업들은 운영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임
- 아울러 유망한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경쟁에서 중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임
- 주요 기업들은 합병을 통해 지리적 규모를 확장하고 교차 모드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할 것임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 본 보고서는 미래 물류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제공해 물류기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미래 물류산업에서는 높아진 고객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고, 기술 혁신, 신규진입자 및 새로운 형태의 협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만을 활용하는 폐쇄적 전략보다 신생기업과의 과감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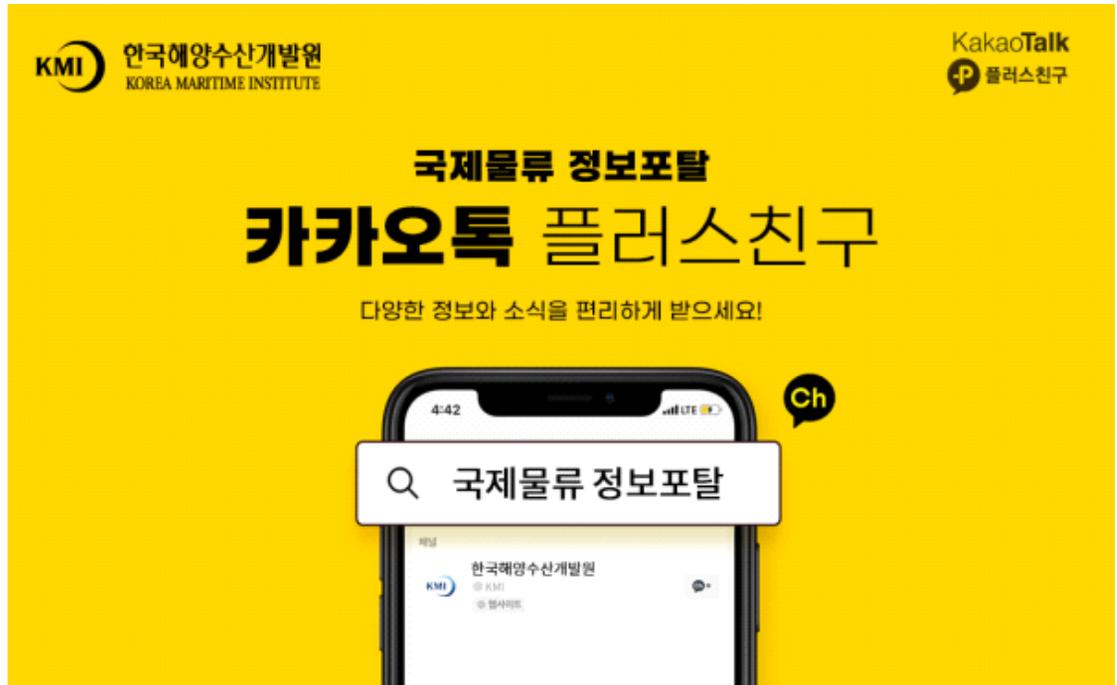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1. 모집기간 : 2021년 6월 16일(수) 09:00 ~ 7월 14일(수) 18:00 까지
2.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3.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4.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1년도 1~3차 모집 선정기업 4차 모집 자원가능(당해 연도 단일 기업 최대 2건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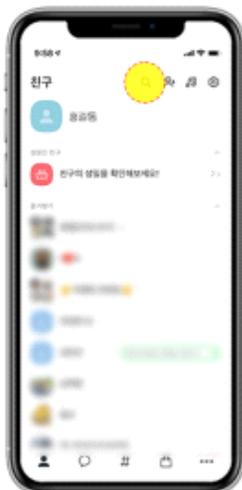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21.06.16~)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을 통해 실시



P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